

임실치즈마을 전국서 우뚝

농식품부 행복마을 콘테스트서 대통령상 수상... 농촌체험 소득 두각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임실치즈마을이 대한민국 최고의 농촌체험마을로 우뚝 섰다. 임실치즈마을은 주민주도의 마을 사업 모델을 전국에 확산시키며, 치즈를 테마로 한 농촌마을공동체의 수익모델을 제시한 농촌체험마을로서 그 지력을 과시하고 있다.

임실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네 번째로 개최한 ‘행복마을 콘테스트’에서 전국적으로 경쟁한 마을들을 제치고,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실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네 번째로 개최한 ‘행복마을 콘테스트’에서 전국적으로 경쟁한 마을들을 제치고,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

임실군은 농촌체험과 문화복지, 경관환경, 깨끗한 농촌마을, 시군 마을만들기 등 총 5개 분야로 치러진 콘테스트에서 체험소득 분야에 단연 두각을 드러내며, 대통령상과 함께 상금 3000만원을 거머쥐는 영예를 얻었다.

이번 콘테스트는 전국의 2,742개 마을이 신청, 각 도별 예선 및 중앙현장 평가를 통해 본선에 오른 25개팀이 경합을 벌였으며, 임실치즈마을은 도내 유일의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콘테스트는 마을의 우수성 소개와 동영상 및 퍼포먼스 형식으로 마을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전문 심사위원 및 국민심사위원이 마을실적, 주민통합, 창의성, 완성도 등의 기준

에 따라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임실치즈마을은 임실지역에 협동의 씨앗이 뿌려진 이후 35년간의 도전과 좌절, 성공을 담은 스토리와 마을공동체의 활동과 성과, 그리고 임실치즈마을의 꿈을 담아내는 주제발표와 함께 ‘임실치즈 50년의 역사’를 담아낸 오색치즈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심사위원과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과 호응을 얻었다.

임실치즈마을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40만명의 체험객이 다녀갔으며, 매출액 12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52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

과를 냈으며, 전국의 농촌마을 및 행정기관 등 504개팀이 치즈마을을 다녀감으로써 주민 주도 마을사업의 모델로 전국으로 전파시킨 점이 높게 평가됐다.

심민 군수는 “이번 수상은 관광지로서 마땅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며, 수십년간 도전과 좌절을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임실치즈마을의 성공을 모델 삼아 제2, 제3의 치즈마을이 탄생될 수 있도록 마을 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충영 기자

남원시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

지리산 약수온천, 개발 가능 재산권 행사 애로사항 해소

남원시 이백면 효기리 일원 100만 8,800㎡에 지정되어 있던 지리산 남원 약수온천 온천원 보호지구가 지난 9월 15일 해제되었다.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이백면 효기리 일대는 1993년 9월 처음으로 온천 발견 신고가 이루어져 1995년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1999년 관광지로 지정되고 2001년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되었으나 개발이 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어 관광지 조성계획 및 관광지 지정이 실효되었다.

그 동안 장기 미개발 상태로 개발 계획 없이 온천원 보호지구로만 지정되어 있어 온천원 보호지구 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시는 2016년 10월부터 온천원 보호지구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 8월 18일 남원시는 전북도에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를 신청하였고 도는 9월 15일자로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함으로써 온천원 보호지구가 해제되었다.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t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 도서는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 가능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온천원 보호지구를 해제함에 따라 토지 이용 규제 사항이 사라지고 각종 개발행위 및 재산권 행사 애로사항이 없어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순창군의회(의장 김종섭)가 제226회 임시회(9.11 ~ 9.18)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지난 11일부터 8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정성균 운영행정위원장, 손중석 산업복지위원장)의 심도 있는 심사로 12건의 안건은 원안 의결, 3건의 안건을 수정의결 하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계수 위원장)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심사한 결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군민숙원사업과 소득증대 및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 “원안 의결” 하였다.

김종섭 의장은 “연초에 시행하였던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2018년도 국비확보와 신규사업 발굴에도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천여가지 세계소스 총집합

‘장류의 고장’ 순창군서 박람회 10월 20일 개막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하고 독특한 소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순창세계소스박람회가 10월에 두 번째 막을 연다.

군은 제2회 순창세계소스박람회를 오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고추장민속마을 발효소스도굴 일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창세계소스박람회는 제1회 순창장류축제와 함께 진행해 박람회 참가 시 장류축제까지 즐길 수 있게 했다.

지난해 제1회 세계소스박람회는 세계 10여개국, 100여개 기업이 참가해 1,000가지 소스가 전시되고 다양한 판매행사가 열려 세계소스의 흐름과 국내 소스류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열었다는 성공적 평가를 받았다.

올해 열리는 제2회 순창세계소스박람회는 세계 150여개 기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돼 더욱 다양한 세계소스를 만나볼 수 있게 된다.

또 관광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지난해 보다 대폭 늘려 10만명 규모가 참여하는 박람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전시 규모를 확대한다. 기존 해외기업관, 국내기업관 2개의 대형전시관을 산업관, 마케팅관, 전시관 3개관으로 늘린다. 13개국 69개사가 참여해 94개의 부스를 운영하게 된다. 국내는 물론 세계 소스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내 소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일에도 팔을 걷어 부친다. 우선 미국대사관, 한독상공회의소 등 해외기관에서 15명이 참여하고 호텔앤레스토랑 관련 매체에서도 10여명이 참가한다. 또 유튜브바이 등 100여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군 측은 예상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세계소스박람회는 세계 소스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장류리는 한국 전통의 소스의 해외 시장 진출을 꾀할 수 있는 소스관련 국내 최대 박람회다”면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가 팜투어 남원누비GO 사업단 구성해 농촌·관광자원을 연계한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팜투어 남원 누비GO’ 농촌 경관 만끽

농촌·관광자원 연계 여행 프로그램 성황

남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면서 팜투어 남원누비GO 사업단 구성, 농촌·관광자원을 연계한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팜투어 남원누비GO 사업으로 약 300여명의 타 지역 방문객(블로그 여행단, 동창회 및 향우회 등)들이 남원을 방문하였고, 팜투어 일정을 함께하며 남원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과 여유로운 일상을 함께 즐겼다.

농촌마을 하천청소 등의 재능기부를 통해 농촌과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마을 유명지 답사, 농촌에서의 발발체험, 사과 따기, 포도주 담기 등의 농촌체험을 경험하였다.

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시범으로 실시되며 카페·블로그 여행단, 자유학기제 학교 및 기타 단체들이 많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누비GO 팜투어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모집공고 내용 참고해 메일(chaoskn@daum.net)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예촌 관광개발 청사진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남원시가 ‘남원예촌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남원시는 19일 이환주시장을 비롯한 문화·관광 등 관계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예촌 관광개발 기본계획·타당성 조사 및 운영방안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남원예촌의 각 사업별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발전방안 및 연계방안 수립과 함께 새로운 남원예촌 5지구 관광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관광투원 일원에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조성하여 원도심권으로 관광권역을 확대하는 관광개발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612억원을 투입하여 관광투원 4대문을 중심으로 5개 지구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전통한옥체험단지는 지난해 7월 개관하여 최고급 명품한옥 숙박시설로 운영 중에 있으며, 전통문화체험단지과 예촌물길 또한 금년 4월 완공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남원예촌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금년말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남원예촌 5지구 사업을 연차별로 순조롭게 진행하여 관광투원 일원 관광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나눔의 손길 잇따라 백미·한돈 등 소외계층 전달

임실군은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추석명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군은 1억1천3백 여만원을 투입해 오는 29일까지 추석명절 위문기금을 설정하고 공공 및 유관기관,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각계각층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임실군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정용석)는 백미 300kg(60만원)을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이어 19일 NH농협 임실군지부(지부장 최완)는 백미 1천kg(200만원상당), (사)대한한돈협회 임실지부(지부장 김성두)도 한돈 400kg(400만원상당)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임실군에 기탁했다. 두 기관은 매년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해 각종 물품을 기탁하고 있어 지역사회 나눔 문화 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최완 지부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쓸쓸히 지내는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충영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 백두대간 역사관
- 3D 애니메트로닉스관
- 어드벤처 라이더관
-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